

양봉 학계와 꿀벌 연구 협력, 양봉산업 역량 키운다

농진청, 20~21일 제주시 한국양봉학회 공동 학술대회 열어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양봉학회와 함께 20~21일 제주대 아라칸벤션홀에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봉으로 전환'을 주제로 제41차 한국양봉학회 동계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양봉 관련 학계 연구자와 전국 양봉농가, 청년 양봉인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연구개발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 양봉산업이 나아갈 길을 논의한다. 학술대회 기간 중 기초 강연과 특별 강연 등 총 70건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중국 장시농업대학 지장첸 교수가 초청강연자로 나서 '중국 육종연구 및 산업 현황'을 소개하며 꿀벌 육종 관련 국제 연구 동향을 공유한다. 국내 연구진은 디지털 육종과 꿀벌 강건성 육종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연구기관과의 소통으로 꿀벌 관련 연구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공동연수회도 마련한다. 이번 공동연수회 주제는 '꿀벌 신품종 지역 적응 사업을 위한 토종벌 육종 및 사양 관리 실무교육'과 '농

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화분매개벌 이용 기술 현황'이다. 또한, 꿀벌 신품종 실무교육도 진행한다. '꿀벌 육종 이해'를 주제로 기초 역량을 강화하고, 꿀벌 해충 예방 기법과 방제 관리법, 분자생물학을 통한 질병 진단 기술 등을 교육한다. 토종벌 명인 김대림 대표가 토종벌 육종과 사양 관리, 7곳 지자체 연구자들은 딸기 등 10개 작물 화분매개벌 표준화 이용 기술 연구 결과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학술대회를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봉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기반 마련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한 우수 꿀벌 품종을 양봉농가에 조기 보급해 양봉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설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한상미 과장은 "이번 양봉학회는 스마트 양봉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농촌진흥청이 선도적으로 디지털 육종과 화분매개벌 분야 연구개발에 매진해 양봉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상공회의소는 18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에서 전주상의 회장단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공급망 ESG 지원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전주상의, ESG 지원센터 현판식

ESG 컨설팅·교육 등 ESG 규제·지역기업 대응력 지원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18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에서 전주상의 회장단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공급망 ESG 지원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을 계기로 전주상의 '전북공급망 ESG지원센터'는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ESG를 규범화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내 위치한 수출 중소기업에도 환경, 노동인권, 준법경영 등 ESG관련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탄소배출이나 유해물질 관리 등을 포함한 환경과 노동준법경영 등 ESG규범을 실무법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의 ESG경영 역량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전주상공회의소 '전북공급망 ESG지원센터'는 앞으로 지역기업들의 ESG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ESG 대응 교육·설명회 등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태 회장은 "최근 경영환경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지역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ESG 이슈에 잘 대비하고 공급망 ESG 실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센터를 통해 ESG 경영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023년 8월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권역별 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지난해 지역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교육과 설명회는 물론 15개사를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컨설팅과 더불어 더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교육과 진단평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 2025년 범농협

제1차 '시너지협의회'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17일 농협전북본부에서 범농협 계열사 간 소통 강화와 시너지 제고를 위한 전북농협 제1차 시너지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북농협 시너지협의회는 농협중앙회와 경제자유, 은행, NH투자증권, 보험, 농협유통, 자산관리 등 전북지역의 범농협 협의체로서 각 법인 대표자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북의 농업·농촌·농업인 발전을 위한 현안을 공유하고 자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협력', '고령사당기부체 확산을 위한 참여 방법', '범농협 농촌일손돕기 참여 확대', '전북농협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범농협 재난안전 교육 실천 및 점검',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 지속 전개' 등의 7가지 안건을 각 법인별로 실천 가능한 각자의 계획을 발표하며,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사안은 상호 보완과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협의하였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전북농협의 시너지협의회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업'에 맞게 범농협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희망농업 행복농촌 농업소득 3천만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중기청, 2025년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예비 창업기업 1200여개 선발, 창업지원 프로그램·사업화 자금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2025년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 사업으로 혁신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사업모델 고도화·시장진입·투자·실증 등 분야별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제품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자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누리집

(k-startup.go.kr)에서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통합콜센터(☎1367)로도 문의할 수 있다. 예비·초기 창업패키지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모집에서 예비창업자 780여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선발된 예비창업자에게는 창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비즈니스모델(BM)구체화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자금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2천만원 이내)을 1차로 지급하고,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거쳐 추가자금(4천만원 이내)을 지원하는 차등지원 방식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준비된 창업으로 지속성

장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를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초기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30여 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초기창업기업에게는 시장 안착을 위한 실증, 컨설팅, 초기 투자유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 자금(평균 7,000만원)도 지원한다. 전북중기청 안태용 청장은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인 예비창업,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이 각 단계의 창업기업들의 도전과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다"며, "지역의 예비 및 초기 창업자의 많은 도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부채농가 경영정상화 사업비 지원

2025년 경영회생지원사업비 866백만원 신청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부채나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 위기가 도래한 농가를 경영 정상화가 되도록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업재해 및 부채로 경영위기를 맞은 농가는 농지는 행에 농지를 팔아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다시 임차(최장10년)해 영농하면서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다시 살 수 있도록 환매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영 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대위변제 등을 통해 부채 상환을 돕고, 해당 농업인에게 7년에서 10년 동안 매입 필지를 임대함으로써 농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임차 기간 동안 매도한 필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다. 환매 시에는 필지별로 감정평가 환매와 정책요율 환매(고정요율 또는 변동요율중 선택) 중 낮은 금액을 적용, 환매가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일시납부·분할납부(최장10년) 할 수 있다. 참여 자격은 영농경력(경영체 최초등록일기준) 2년 이상의 70세 미만 농업경영체(65세~69세이하)자 진흥구역 농지)로, 재해 피해율이 50% 이상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매입 대상은 전·답·과수원인 농지 및 부속된 농업용시설이다. 매입 상한은 6~11.3만 원/㎡이며, 지원금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15억원, 농업법인의 경우 20억원이다. 이외에도 해당 지역에 언급되지 않은 요건들이 존재하며, 매년 지침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농가는 관할 지사 담당자와 대면상담 및 대표전화(1577-7770 또는, 063-350-7084)로 유선 상담을 통해 지원 자격과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데이터기반행정 3년연속 최고등급 달성

전기안전공사, 3개 영역 10개 세부지표서 성과 '우수'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하영)는 행정안전부 2024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은 각 기관이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의 기획과 집행 전반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679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공유 △관리체계로 구성된 3개 영역 10개 세부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대표적으로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

점검 온라인 전환 분석,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전기안전 정책에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인정받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하영 사장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공사인·직원이 데이터를 단순히 수집·저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책과 행정 서비스 전 과정에 적극 활용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데이터 킷킷이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 체감 데이터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